



**동인문학상에 장흥 출신 이승우 '지상의 노래'**

‘생의 이면’ ‘미궁에 대한 추측’ 등이 유럽과 미국에 번역된 작가, ‘식물들의 사생활’ ‘한낮의 시선’이 한국소설로는 최초로 프랑스 갈리마르 출판사의 플리오 시리즈 목록에 올랐던 작가..

소설가 이승우(54·조선대 문창과 교수·사진)가 마침내 동인문학상(상금 5000만원)을 거머쥐었다.

동인문학상심사위원회(김주영·김화영·오정희·이문열·정과리·신경숙)는 최근 이승우 작가의 장편 ‘지상의 노래’(민음사)를 올해 44회 동인문학상 수상작에 선정했다. 이로써 지난 2000년 동인문학상이 개편된 후 모두 5회나 최종 후보에

올 이후, 32년간 소설이라는 한 우물을 파왔다. 그동안 17권의 장편소설과 소설집을 발간했고, 작품집마다 ‘진지하고 지적인 문학’이라는 평가가 이어졌다.

동인문학상심사위원회는 “‘지상의 노래’는 책이기에 하나의 거대한 거울이다. 이 거울은 삶이 뜻의 가리키는 암시들로 은은하건만, 역설적이게도 여기에 비쳐 보이는 것은 무지와 맹목에 사로잡힌 인간의 거대한 행태다”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그동안 문학에 관심있는 독자들은 이승우 작가가 언제쯤 동인문학상을 받을 것인지 내심 기

곁에 사랑, 권력이라는 모티프가 자리한다. 절대자의 세계가 결국은 인간을 이해하기 위한 장치로 형상화되었다는 의미다.

“신학공부를 했기 때문에 작품에 기독교적 세계관이 자리하고 있지 않나 싶다. 그럼에도 나의 문학적 관심은 신이 아니라 인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 작가의 고향은 장흥이다. 이창준(1939~2008), 송기숙, 한승원 작가와 동향이다. 동인문학상 수상은 장흥이 문향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증명한 셈이다.

그는 “장흥의 가난한 바닷가 마을에서 태어났



**‘가을밤의 낭만’ 야외음악회 열어요**

깊어가는 가을 저녁을 낭만으로 물들일 야외 음악회가 시민들을 기다린다.

첫번째 무대는 ‘상생과 소통이 함께하는 달빛울림소리 정자음악회’. (사)아시아공연예술위원회가 주최하는 정자음악회가 18일 오후 7시 광산구 신창동 풍영정에서 올해 마지막 무대를 마련한다.

음악회는 바이올린과 통기타로 연주하는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Knock on wood’, ‘비내리는 창가에서’ 등 클래식 공연으로 시작된다.

이어 아쟁산조와 한국전통 춤의 한·흥·땃·태를 고틀 볼 수 있는 교방무, 다채로운 가락을 들을 수 있는 삼도설장구, 판소리 ‘춘향가’ 중 ‘이별가’ 국악 무대가 이어지며, 요들송 가수 김홍철씨가 요들송 공연을 선보인다.

내일 ‘달빛울림소리 정자음악회’ 19일 ‘광장음악회’ 을 마지막 공연

공연 관람후 만족도에 따라 자율적으로 관람료를 지불하는 후불제로 진행된다. 문의 062-226-2030.

매월 셋째주 토요일 공연을 진행하고 있는 광장음악회도 올 마지막 공연을 앞두고 있다. ‘세계여행’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음악회는 19일 오후 7시 남구 노대동 물빛공원(진월지구 호수공원)에서 열린다.

음악회는 광주엔시안오델렐라의 ‘귀여운 요델 소년’, ‘산의 방랑자’, ‘아름다운 스위스아가씨’ 요들송에 이어 카우얼 연주 ‘에델바이스’, ‘로페미 송’, ‘즐거운 목동’으로 시작된다.

이어 베조소프라노 김사라씨가 아일랜드 민요 ‘오대니 보이’와 ‘I got Rhythm’을, 테너 강동명이 ‘키스해 주세요’와 스페인 가곡 ‘Granada’를 들려준다.

바이올린과 기타 합주로 들려주는 ‘가장행렬’과 헝가리 집시 민속무곡 ‘차르타슈’도 음악회 분위기를 띄운다. 10월 음악회를 끝으로 휴식에 들어가는 광장음악회 다음 공연은 2014년 4월 열릴 예정이다. 문의 010-2038-3522.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인간에 초점 맞춘 작품... 변함 없이 오랫동안 글 쓸 것”**

올랐던 이 작가는, 여섯 번째 만에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작가는 “기쁘다고 하기에 다소 민망하다. 10월 초까지 연락이 없어 올해도 아닌가 보다. 마음을 잡고 있었는데 뜻밖엔 연락이 왔다”며 소감을 대신했다.

그는 1981년 ‘에리직톤의 초상’으로 문단에 나

대를 했었다. 그의 작품집이 발간되면 반드시 구매를 하는 마니아들이 적지 않을 만큼, 그는 고정 독자층을 확보하고 있는 작가였다.

그의 문학 기저에 흐르는 일관된 주제는 초월의 영역에 대한 탐색이다. 인간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 그는 늘 초월의 세계를 소설 속으로 끌어들이었다. 수상작인 ‘지상의 노래’도 초월의 세계와

지만, 문학은 나를 성찰하게 했고, 나를 일으켜 세웠던 예술”이라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오랫동안 글을 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작가는 대산문학상(1993), 동서문학상(2002), 현대문학상(2007), 황순원문학상(2010) 등을 수상했다.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자유로운 집시음악**

전남CBS 10주년, 여수엑스포홀

흥겨운 집시 음악을 만난다.

전남CBS(본부장 주철)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세르게이 트로파노프 & 집시 앙상블’ 초청 연주회를 갖는다. 18일 오후 7시 여수엑스포홀.

옛 소련 몰도바 출신인 바이올리니스트 세르게이 트로파노프와 집시 앙상블은 이번 공연에서 ‘닥터 지바고’, ‘몰도바’, ‘검은 눈동자’, ‘러시안 랩소디’ 등을 선사한다. 또 ‘보리밭’, ‘아리랑’ 등 우리에게 친숙한 한국 가곡도 연주, 색다른 매력을 전할 예정이다.

정통 클래식을 바탕으로 한 세르게이 트로파노프의 음악은 특유의 정서를 갖고 있는 집시 음악과 결합, 시대와 국경을 초월한 감동을 전한다는 평을 받고 있다. 문의 061-901-100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고대옹관 국제학술심포지엄’**

**나주 오량동 가마는 대형옹관 유일한 대규모 생산지**

**가마 60기서 500여기 생산 추정**

한국 고고학계 최대 미스터리 중 하나로 꼽히는 대형옹관은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비밀이 많다. 영산강 유역에서만 발견되는 3~6세기 대형옹관은 영산강 고대 문화 독특한 양식중 하나로 다른 지역은 물론 동아시아에서도 그 유례를 찾기 힘들다.

최근 영산강 일원에서 제작된 대형옹관 생산량을 추론한 흥미로운 연구결과가 나왔다.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정성복 학예사는 최근 ‘나주 오량동 요지 최근 조사성고’ 자료에서 나주 시 오량동 산 27 일대 오량동 요지 가마 60기에서 모두 500여기의 옹관이 생산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이는 3~6세기 말에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전남지역 대형옹관고분 87개소 480여

기와 버금가는 수치다.

이 자료는 가마에서 1회 소성(燒成)시 생산량을 가마의 규모와 대형 옹관의 크기를 통해 추정했다.

지난 2001년 대형옹관 가마터 15기가 처음 확인된 나주 오량동 요지에서는 지금까지 모두 60기의 가마가 확인됐다. 발견된 가마들은 소성부 길이가 490~625cm, 너비는 120~190cm 사이다. 옹관들은 기고 82~194cm, 구경 53~132cm, 구연부 두께 3.0~9.6cm, 최대동체경 52~100cm 규모다.

이에 따라 대부분 가마에서 대형옹관 1개, 소형옹관 2개를 생산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정 학예사는 “확인된 가마마다 최소 3회 이상의 가마 보수흔이 확인되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최소한의 옹관 생산량을 짐작할 수 있다”며 “옹

관고분이 영산강 일대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과 대형옹관고분이 당시 상위계층의 무덤으로 사용된 점 등은 생산에 있어 통제와 관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조사는 지금까지 조사된 가마의 구조적 특징, 가마의 배치와 밀집도, 출토 옹관의 통계적 수량을 통해 생산량을 추론함으로써 영산강 유역 대형전용옹관 생산에 있어 나주 오량동 요지가 차지하는 위치를 검토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정 학예사는 “오량동 가마는 상시적으로 대형옹관을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대규모 생산지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자료는 16일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에서 ‘대형옹관 생산과 유통 연구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제6회 고대옹관 국제학술심포지엄’에서 발표됐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www.kjhr.com

since 1982

**창업 31주년 국제보청기**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본 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다음달 28일까지

**50% POWER SALE**

NAVER **홍스페이스**

지하 2층~5층 **가구빌딩**

**홍스페이스** SPACE

☎ 1899-0240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로터리 58-15